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용서행동유형의 결정요인분석[†]

이 연 수 송 민 경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차에 의한 용서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용서하기와 용서받기의 여부를 가장 잘 분류해주는 변인은 호의성(agreeableness)이었다. 중학생들의 경우 호의성이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적을 경우,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정도가 높으면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용서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용서행동을 가장 잘 분류해주는 변인은 성별이었다. 또한 피해경험이 많은 여학생들이 자존감이 낮을 경우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남자이면서 정서적인 안정성이 부족하고, 분노도 억제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의존적일 경우 정서통제의 역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용서의 발달양상을 확인한 것이며, 성차에 의한 용서행동의 양상과 선택은 전략적 적응양식으로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미와 피해상황의 다양성, 가정변인이나 개인의 기타 특성, 특히 청소년 개인의 태도나 대처기제 등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서 추후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용서하기, 용서받기, 성(gender), 학교급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0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청송, (43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 Tel: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족, 배우자, 친구 또는 낯선 사람들과의 갈등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간적 갈등상황에서 큰 상처를 받거나 부당함을 느끼곤 한다. 이 경우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노나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손상된 대인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부적 정서를 경감시키는 다양한 대처방식을 동원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갈등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응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서(forgiveness)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McCullough, Exline, & Baumeister, 1998).

용서는 상처받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안녕의 회복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깨어진 관계회복의 문을 열어주며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활력을 강화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Holmgren, 1993). 최근에 이러한 용서의 이점을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용서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남을 위한 이타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용서하는 본인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나 용서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용서를 잘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박종호, 2006). 혹은 제 3의 변인 때문에 용서와 건강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허위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격 이외에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의 용서에 대한 연구는 용서의 개념 및 정

의, 용서의 기능과 효과, 용서를 촉진하는 요인 등에 관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초보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광수, 2002a). 1980년대 이래로 서구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용서의 긍정적 기능이 확인되어왔지만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을 뿐, 아직까지도 심리학 분야 내에서조차 용서의 개념적 정의가 합의되어 있지 않다(김기범, 임효진, 2006).

용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결정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역동적(dynamic)이며 진행적인 과정(process)이다(Konstam, Holmes, & Levine, 2003). 따라서 용서하기와 용서받기가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에서 초래하는 피해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용서경험의 효과와 그 결과를 조절하는 변인들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용서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용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이들 변인들 간의 조합적인 관계를 포괄적으로 모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적응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학교경험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용서하기의 측면뿐만 아니라 용서받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용서경험을 일으키는 심리적 변인들 간의 조합적인 관계를 학교적응이라는 환경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용서하기 경험과 용서받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성별 및 학교급(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용서하기와 용서받기의 상응적 행

등을 설명하는 심리적 변인들 간의 조합은 어떠한가?

용서의 개념

용서는 인간생활 전반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리상태로 정의되어왔다 (Day & Maltby, 2005; 김지현, 2007). 한편, Williamson(2004)는 용서를 개인 내적인(intra personal)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용서의 대상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용서의 초점이 상황에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용서를 “침해자, 침해행위 및 그 후유증에 대한 부정적 집착에서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 대상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감정을 발달시키지 않을 수 있다. 중립적이고 초탈한 감정상태만 유지해도 용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보복하겠다는 동기만 가지지 않는다면 모두 용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용서를 통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 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다(Day & Maltby, 2005). 따라서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용서에는 반복되는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Benson, 1992).

용서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자를 대상으로 용서프로그램을 진행한 김광수(2002b)의 연구에서는 용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인 분노의 정도를 낮추고,

자존감 정도는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서훈련집단상담을 진행한 황혜자와 김태훈(2006)의 연구에서 용서는 분노를 표출하고 억제하는 분노통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분노를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학교적응도 역시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실제로 새터민을 대상으로 용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박철옥(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외상경험 이후에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서과정을 통해 탈북 과정에서 경험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서도 용서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인 외상의 재경험과 생리적 각성(심장 박동수나 혈압의 증가, 수면곤란, 집중력 감소 등)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철회하여 고독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잘못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고독이 감소하여 대인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용서는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용서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용서는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키는 반면 부정적 정서와 신체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mand, 2008). 용

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gender)과 학교급, 성격 관련 변인, 그리고 인지 및 정서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용서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성(gender)과 학교급은 용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Kohlberg(1976)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평함을 중요시하는 도덕체계를 가지므로 가해에 대해 맞서 싸우거나 복수 또는 처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온정적 도덕체계를 가지고 있어 용서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Davison, 2002). 남성들은 용서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며, 용서를 함으로써 잘못을 판정받거나, 상대방과 화해하고 이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용서에 따른 결과보다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서정선, 2007). Hill(2001)은 용서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분석을 통해 아내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용서 사이에 쌍방향적 상호관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에서 용서로 가는 일방향적 경로만 유의함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적이기 보다는 조화롭게 살아가고 타인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여아들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협동적이고, 지지적이고, 민감하도록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발달시키도록 한 반면, 남아들은 자기 주장적이고, 경쟁적이고, 독립적이 되도록 도구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을 발달시키도록 장려 받아왔다(Denton & Martin, 1998). 따라서 용서에 대한 압력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nright(1996)는 용서의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구조를 연구하여 용서의 인지발달적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Kohlberg(1976)의 정의(justice)의 발달단계와 대비해서 용서발달 형태(style)를 구분하였다. Enright(1996)가 제시한 용서형태가 순서대로 발달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조망수용능력(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이란 타인의 상황이나 생각, 태도 등을 추론해 내는 과정인 인지적인 요소와 어떤 상황이나 의도, 느낌 등에 대해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 함께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능력이다(김충송, 2009). Selman(1980)은 만12세 정도에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아동들도 비교적 복잡한 형태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유추하였다. 따라서 13세 이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비록 높은 수준의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또래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자아를 회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행복감과도 분명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래들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되는 아동은 자신감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갖게 되어 원만한 대인관계와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한 아동은 자신감 결여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회피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이로 인해 또래집단으로부터 더욱 고립

되고 우울, 불안, 고독감 등의 심리적 문제, 학교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공격행동, 비행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오영희,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학교를 중심으로 한 또래관계가 원만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며 정서적인 부적응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 또래관계에서 야기되는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적응을 좌우하는 강력한 정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용서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학교경험에서 초래되는 용서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상과 같은 다양한 용서결정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용서와 성격의 관계는 McCullough, Bellah, Kilpatrick 및 Johnson(2001)의 연구에서 호의성(agreeableness)과 신경증(neuroticism)의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Davison(2002)도 신경증과 호의성은 성별, 연령, 종교활동 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타인을 용서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Byrn과 Eysenck(1991)의 연구에서도 자기용서는 신경증의 모든 하위요소와 강한 부적 관련이 있었고, 타인용서는 호의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Smedes(1984)의 연구에서 자기에, 죄책감, 수치심은 자신 및 상황용서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지만, 타인용서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죄책감과 자존감이 자기에적 성향과 자기용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자아에 대한 이해, 유머, 그리고 정서조절능력과 같은 인지 및 정서 관련 변인 또한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의 능력, 성취, 자신감,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쉽게 우울, 무능력감(imcompetence), 무력감(helplessness)을 보이고 갈등이나 위협을 피하기 쉽다(Coyle & Enright, 1997). 그들은 자기를 좋게 보지 않고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좋게 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Denton & Martin, 1998).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위협을 피하고 오히려 수동적인 대처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Enright & Zell, 1989). 이러한 점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가해를 당한 후 가해자를 향해 분노하지만 보복하기보다 회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Coyle & Enright, 1997). 즉,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체념하거나 용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분하다(Fincham, Hall, & Beach, 2006).

용서를 촉진시키는 과정에 공감은 중요한 용서 전략의 매개요인이 될 수 있다(Fincham, Paleari, & Regalia, 2002;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Wade & Worthington, 2003; 김기범, 임효진, 2006). 공감이 대인용서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공감은 침해자가 느끼는 죄책감, 관계 재구축에 대한 갈망 등에 대한 배려를 유발함으로써 복수동기나 회피동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김기범과 임효진(2006)은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탐색하고 공감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용서를 하려는 의도나 행동에 회피동기와 공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피동

기가 낮고, 상대방에 대해 공감할수록 용서할 의도가 높고 또 실제 용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de와 Worthington(2003)은 9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가해행위에 있어서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 사이의 잠재적인 차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비교한 바 있다. 연구결과 용서는 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공감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용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self)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처한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는 문화적 환경요인에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Markus & Kitayama, 1991). Trindis(1996)는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dependent self-interpretation)과 집단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으로 구별하였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 소속하여 타인과 상호의존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interpretation) 방식에서는 자기를 타인과 분리된 독자적인 실체로 간주한다. 이들은 자신의 내적 특성이 독특하고 자기와 타인이 구별됨을 확인했을 때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관점을 적용, 독립적 자아해석 및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용서행동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머는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머감각은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건강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Lefcourt, 2002; 배정은, 2006). 유머감각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우울과 불안이 적고, 잠을 잘 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ncham et al., 2002). 그러나 지금까지 용서와 유머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연구된 것이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유머스타일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적응적 유머를 자신 및 타인용서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Barber, Maltby 및 Macaskill(2005)은 정서조절을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략들이 적응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지연(2008)은 정서조절전략이 불편한 감정을 완화시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적응에 기여할 때 적응적이라고 정의하였다. Garnefski, Kraaij 및 Spinhoven(2001)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인 전략으로 긍정적 재조명, 해결중심적 사고, 긍정적 재평가, 균형 있게 바라보기를 포함하였으며, 부적응적인 전략에는 자기비난,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전략을 구분하여 용서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후 남학생 233명(중학생=142명, 고등학생=91명), 여학생 186명(중학생=80명, 고등학생=106명), 총 419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6.05세(Std=1.43)로 연령범위는 만13세에서 18세까지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용서경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용서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효진(2005)의 용서 피해 종류의 내용분석 결과를 기초로 이지연(2008)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적인 피해상황에서 자신이 타인을 용서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게 하였고, 가해상황에서는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하게 하였다. 피해를 받은 경험 중에서 용서를 한 비율을 용서하기 경험(용서한 문항 수/[문항수 - 피해상황 경험 없음])으로 환산하며, 가해를 한 경험 중에서 용서를 받은 비율을 용서받기 경험(용서 받은 문항수/[문

항수 -가해상황 경험 없음])으로 환산한다. 이지연(2008)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용서받기 경험이 .62, 용서하기 경험이 .76이었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계수는 각각 .74와 .87이었다.

성격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성격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Costa와 McCrae(1985)에 의해 개발된 NEO-PI(NEO-personality inventory)를 활용하였다. NEO-PI 척도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등 5개 항목 180개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Keyes, Shmotkin 및 Ryff(2002)가 NEO-PI 척도의 180개 하위문항을 통합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외향성 5개, 신경증적 경향성 4개, 성실성 4개, 호감성 5개, 경험에 대한 개방성 7개 등 모두 25개 항목을 선별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이며, 내적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외향성 .88, 신경증적 경향성 .77, 성실성 .75, 호감성 .81, 경험에 대한 개방성 .82였다.

인지 및 정서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ss(2000)가 제작한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척도(RISC)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친밀한 관계는 “내가 누구인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를 해석하는데 타인과의

표 1. 참여자들의 구성 현황

	중1	중2	중3	고1	고2	전체
남자	38(16.3%)	64(27.4%)	40(17.1%)	48(20.6%)	43(18.4%)	233(100.0%)
여자	16(8.6%)	34(18.2%)	30(16.1%)	56(30.1%)	50(26.8%)	186(100.0%)

관계가 포함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세훈(2007)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74였다.

인지-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박혜경(2008)의 공감능력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조망취하기/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각성/공감적 관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 30문항 중 공감적 각성에 해당하는 15문항 중 5문항만을 선별하여 네 개의 하위영역 당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요인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78과 .76이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지현(2008)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서지현(200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유머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강연미(2005)의 유머스타일 척도를 사용하였다.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적 유머는 관계증진 유머(affiliative humor)와 자기고양 유머(self-enhancing humor)이며, 부적응적 유머에는 공격적 유머(aggressive humor)와 자멸적 유머(self-defeating humor)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유머스타일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재선(2002)의 연구에서 적응적 유머와 부적응적 유머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4와 .67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로 현황을 제시한 후, 용서하기 집단과 용서받기 집단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확인한 이후, 용서행동에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전체 표집을 용서를 잘 안하고 - 용서를 잘 못 받는 유형, 용서를 잘하고 - 용서를 잘 못 받는 유형, 용서를 잘 안하고 - 용서를 잘 못 받는 유형, 용서를 잘하고 - 용서를 잘 받는 유형의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분석(secision tre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들에서 어떤 변인들의 조합이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를 결정하는지 유형별로 구분한 후 용서행동의 촉진 및 방해조건들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사용 프로그램은 Answer Tree 3. 1v(2004)이다. 여기서는 독립변인들의 조합으로 명목형 종속변인의 빈도를 확인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빈도와 기대빈도가 다를 확률을 χ^2 값으로 다지 분리(multiway-split)하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독립변인들의 분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5 수준이었으며 자동적으로 집단내의 구간(또는 범주 수)을 변경한 것을 감안해 p 값에 대한 Bonferroni 조정을 거쳤다. 결측값은 특정마디에서 예측이 일치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체규칙(surrogate rule)을 설정하였다. 정지규칙으로 최대한의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는 3수준이었으며,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d node)의 사례 수는 하위집단 모두 각각 5

와 2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 그리고 연속척도 등이 혼합된 다양한 독립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명목형 종속변인(용서행동유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이나 조합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특성이 다소 이질적이었고 결측값이 많았기 때문에 비모수통계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였다.

투여된 독립변인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성별, 학년, 연령, 가족관계,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교육수준, 부모의 맞벌이 유무)과 성격 관련 변인(호의성, 신경증적 경향성), 인지 및 정서변인(자아존중감,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적응적 유머, 분노조절능력, 공감능력)이었다. 종속변인은 용서하기-용서받기 유형이었다. 용서행동이 발달적 양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료분석은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하위집단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결 과

중학생의 용서모형

중학생 표집을 단순임의추출법으로 분할하여 교차타당성 평가를 시행해 보았다. 여기서는 전체 응답자를 70%의 훈련집단과 30%의 타당화 집단으로 나누어 모형을 구축한 후, 이 모형들의 위험평균을 전체모형의 위험추정치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위험추정치는 동일한 해당마디에 포함되어야 할 임의의 두 사례가 다른 마디로 구분될 확률을 각 마디별로 합산한 지수이다. 이 모형의 경우 훈련집단의 위험추정치가 .066(표준오

차=.023)이고 타당화 집단의 위험추정치가 .088(표준오차=.031)로,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lementine 6. 1 User's Guide, 2001).

중학생의 용서결정 모형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나무구조를 통해 변수의 분리규칙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그 변인을 적용했을 때 각 마디에서 실제빈도와 기대빈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χ^2 값을 통해 검증한다. 이 값이 기각되었을 때($p < .05$) 각 마디의 구간 특성에 따라 분리되어야 하고, 이 과정을 자동적으로 반복하면서 분류나무가 형성된다. 먼저 형성된 상위마디의 변인일수록 중요하며 자식마디의 특성들이 누적되어 가면서 분류율이 증가된다.

중학생의 용서하기와 용서받기의 여부를 가장 잘 분류해주는 변인은 호의성(agreeableness)이었다. 친절함과 감정이입으로 원활한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는 성격특성 중 하나이다. 호의성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은 남을 용서를 하는데 타인에게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확률이 낮아진다(16.43%에서 9.57%). 게다가 자신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남에게 용서받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24.15%에서 37.39%). 따라서 이익추구라는 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결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아무리 호의성이 높아도 타인에게서 받는 피해경험이 많다면(13.6%이상) 자기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또 남에게 용서받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8.2%). 호의적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용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폐쇄적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확률이 없다(0.0%). 중학생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라도 추후의 관계를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대승적인 자기희생의 개념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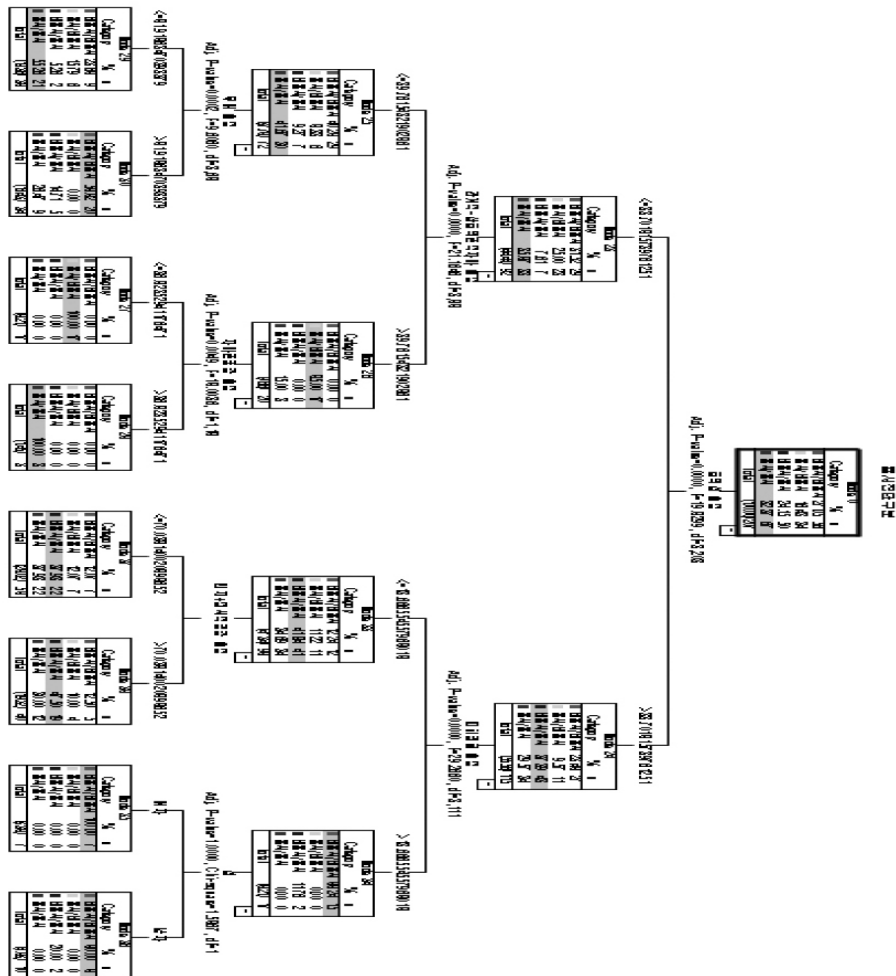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여자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여자들은 자기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또 남에게 용서받지도 못하는 확률이 100%였다. 피해의식을 느끼는 여자의 방어적 성향이 청소년에게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중학생들의 경우 호의성이 높는데 피해경험이 적은 경우,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정도가 높으면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용서받는 경향

이 47.5%에 달하였다. 이것은 뿌리마디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다. 자기는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는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호의적이고 따뜻한 정서적 감응의 소유자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이입은 이기적인 대인 대처전략으로 작동함을 시사해주었다.

호의성이 낮으면 확실히 자기에게 해를 입힌 타인을 용서하는 경향이 낮았다. 특히 호의성이

그림 1. 용서와 용서받아야 할 결과의 양과 양의 상관관계



낮은데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점수가 낮으면, 자기는 용서하는데 남에게 용서받지 못할 확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25%에서 8.38%). 특히, 유머감각까지 높다면 자신은 용서하는데, 남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확률이 없었다. 유머는 피해자에게 여유와 자신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추후의 착취나 이용에 대해 경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관계적 의존적 자아가 낮을 때 유머감각까지 낮은 경우, 타인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주고받는 균형 있는 공식관계가 유지되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는 피해의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호의적이지는 않는데 상호의존적 자아점수가 높은 경우(39점 이상), 자신은 용서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남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확률이 85%로 증가하였다. 호의성이 부족한데 의존적인 사람은 가장 실속 없고 소위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은 남에게 입은 피해를 용서하지만 피해를 입힌 남들은 나를 전혀 용서해 주지 않는다(100%).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기보다는 자기패배적인 수용일 가능성을 강

하게 시사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100%라는 점에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균형 있고 공정한 대인관계를 유발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용서모형에 관한 최종결과는 표2에서와 같은 이익도표를 통해 해석되었다.

Node는 의사결정나무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Node: 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Node: %는 그 백분율 Gain은 (Resp: n) / (Node : n)의 비율.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고등학생의 용서모형

고등학생의 모델도 표집을 단순임의추출법으로 분할하여 교차타당성 평가를 시행해 보았다. 여기서는 전체응답자를 70%의 훈련집단과 30%의 타당화 집단으로 나누어 모형을 구축한 후, 이 모형들의 위험평균을 전체모형의 위험추정치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모형의 경우 훈련집단의 위험추정치가 0.026(표준오차= 0.009)이고 타당화집단의 위험추정치가 0.075(표준오차= 0.039)

표 2. 중학생의 용서 여부를 판별해 주는 각 마디의 이익도표(Gain Chart)

이익지수				누적이익지수			
Nodes	Node: %	Gain (%)	Index (%)	Node: n	Node: %	Gain (%)	Index (%)
28	1.4	4.5	309	3	1.4	4.5	309
29	18.4	31.3	170.7	41	19.8	35.8	180.9
37	28	32.8	117.2	99	47.8	68.7	143.6
38	19.3	17.9	92.7	139	67.1	86.6	128.9
30	16.4	13.4	81.8	173	83.6	100	119.7
27	8.2	0	0	190	91.8	100	108.9
36	4.8	0	0	200	96.6	100	103.5
35	3.4	0	0	207	100	100	100

로,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역시 그리 크지 않았다(Clementine 6. 1 User's Guide, 2001).

고등학생의 용서행동을 가장 잘 분류해주는 변인은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이었다. 여학교생의 경우 자신은 남을 용서하는데 자신의 가해행동에 대해 남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확률이 0%였다. 따라서 자신이 극단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균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는 피해경험이 많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확률도 0%여서, 아예 철저히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들은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확률이 100%여서 폐쇄적인 대인관계가 일차적으로 자기보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이하게도 피해경험이 많은 여학생들이 자존감이 낮을 경우,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100%였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 자기를 비하하는 동시에 동정심을 유발하여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타인의 공격이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시사한다(Fitzgibbons, 1986). 여자들은 피해가 대수롭지 않을(적을) 경우 호의성이 높으면,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100%). 반대로 호의성이 적으면, 이런 가능성이 뚜렷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아 대처전략으로서의 호의성의 기능은 대인관계를 통한 이익추구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피해경험이 적은 여자가 호의성이 낮고 상호의존적인 자아수준이 낮을 경우 즉, 독립적일 경우 용서받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지만 자신도 용서하는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계산적이고 독

립적인 행동이 공정한 인간관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용서행동이 소위 승화된 정신 상태라고 하기 보다는 대처기제로서 기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을 경우, 자기는 용서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을 가능성이 100%였다. 자기가 용서받을 확률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용서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선택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정서적인 안정성이 타인에게 호감과 친밀함을 증가시켜 죄나 잘못을 감면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들이 유머감각까지 높은 경우 용서하고 용서받을 확률이 100%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도 용서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여유를 가지며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순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머가 많지 않을 경우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호의성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안정성의 단독적인 기능이 계산적인 이익추구와 적응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정서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면, 즉 불안하고 기분변화가 심하면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다. 중학생의 경우 호의성의 부족이 고립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극단적인 정서의 일환인 분노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경우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52.94%로 증가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계산적인 행동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계산된 행동은 가해경험이 많을 경우에는 보다 긴박하게 작동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타인에게 가해를 한 경험이 많으면,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분노를 조절하면서 참을성 있게 타인을 대하면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극적으로 줄어든다. 가해자 이면서도 조심성 있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타인으로부터 받을 보복을 방지하는 효과

가 분명히 있다(McCullough et al., 2001).

남자이면서 정서적인 안정성이 부족하고, 분노도 억제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의존적일 경우 정서통제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은 용서하는데 타인에게는 용서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가장 비효율적인 대처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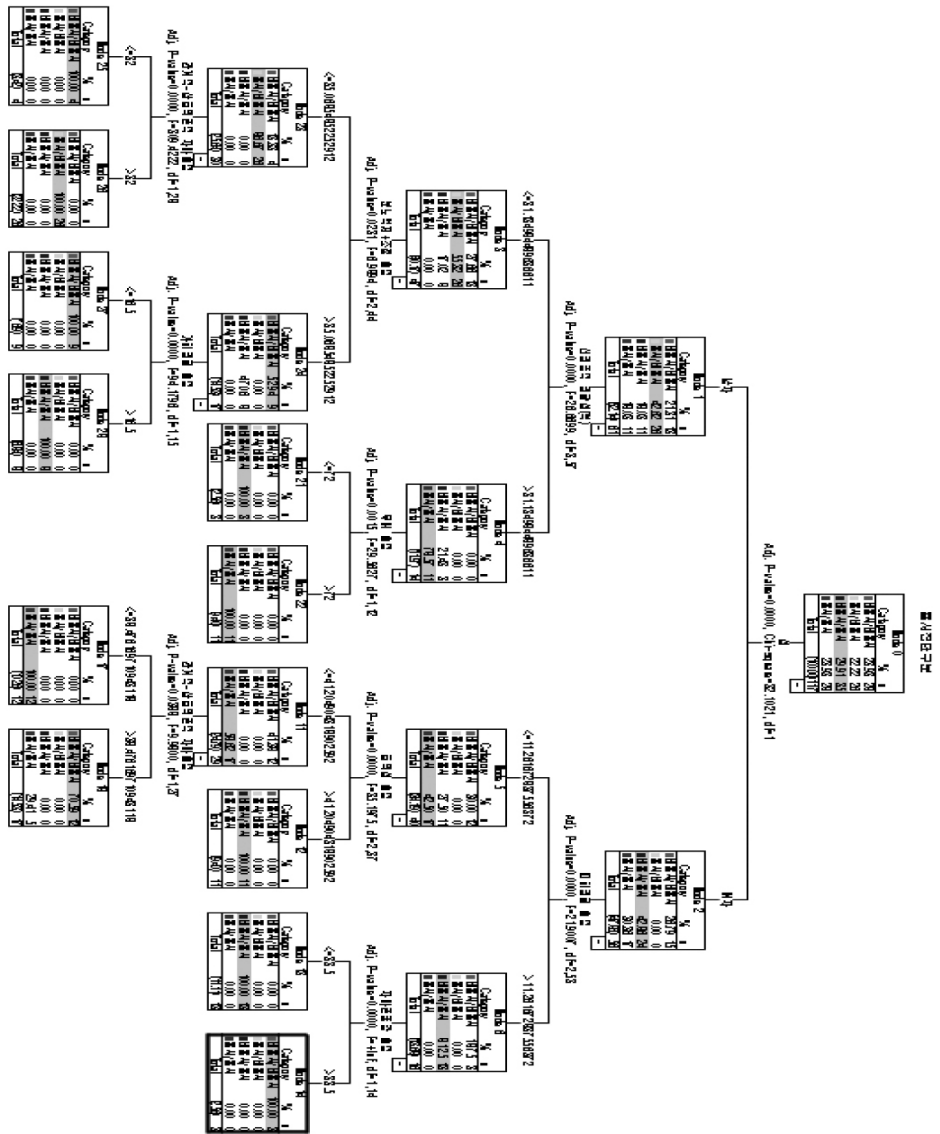


그림 2. 고등학교생 용서의 의사결정모형

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의 용서모형에 관한 최종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은 이익도표를 통해 해석되었다.

논 의

청소년기의 용서과정에는 용서의 의미, 용서의 조건 또는 이유, 용서의 전략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Selman(1980)은 이를 조망수용능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행되는 시기이며,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가 학교생활을 통해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도입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에게서 용서하기가 유의하게 높은 것은 가족에서 또래와 교사 등과 같은 외부인물로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때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커지게 되므

로(윤영미, 2007)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정으로서의 용서의 압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은 고교진학과 함께 진로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김지현, 2007). 성격과 자아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굳건하게 확립된 연령대에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사 표시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이것은 용서행동의 발달적인 차이를 시사하는 Selman(1980)과 김광수(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용서행동을 ‘용서를 잘 안하고-용서를 잘 못 받는 유형’, ‘용서를 잘 하고-용서를 잘 못 받는 유형’, ‘용서를 잘 안하고-용서를 잘 못 받는 유형’, ‘용서를 잘 하고-용서를 잘 받는 유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3. 고등학생의 용서 여부를 판별해 주는 각 마디의 이익도표(Gain Chart)

이익지수				누적이익지수			
Nodes	Node: %	Gain (%)	Index (%)	Node: n	Node: %	Gain (%)	Index (%)
17	10.3	42.9	417.9	12	10.3	42.9	417.9
22	9.4	39.3	417.9	23	19.7	82.1	417.9
18	14.5	17.9	122.9	40	34.2	100	292.5
26	22.2	0	0	66	56.4	100	177.3
13	11.1	0	0	79	67.5	100	148.1
12	9.4	0	0	90	76.9	100	130
27	7.7	0	0	99	84.6	100	118.2
28	6.8	0	0	107	91.5	100	109.3
25	3.4	0	0	111	94.9	100	105.4
21	2.6	0	0	114	97.4	100	102.6
14	2.6	0	0	117	100	100	100

Node는 의사결정나무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 Node: n은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수. Node: %는 그 백분율 Gain은 (Resp: n) / (Node : n)의 비율.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먼저 중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중학생의 용서하기와 용서받기의 여부를 가장 잘 분류해주는 변인은 호의성(agreeableness)이었다. 호의성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은 남을 용서를 하는데 타인에게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확률이 낮아진다. 게다가 자신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남에게 용서받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아무리 호의성이 높아도 타인에게서 받는 피해경험이 많다면 자기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또 남에게 용서받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의적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용당한다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폐쇄적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확률이 없다. 특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여자의 방어적 성향이 청소년에게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두 번째, 중학생들의 경우 호의성이 높는데 피해경험이 적을 경우,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정도가 높으면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용서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자기는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는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호의적이고 따뜻한 정서적 감응의 소유자가 약삭빠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이입은 이기적인 대인 대처전략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중학생들의 경우 호의성이 낮으면 확실히 자기에게 해를 입힌 타인을 용서하는 경향이 낮았다. 특히 호의성이 낮는데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점수가 낮으면 자기는 용서하는데 남에게 용서받지 못할 확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타인에게 만만치 않게 보이고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

히 유머감각까지 높다면 자신은 용서하는데 남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유머는 피해자에게 여유와 자신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추후의 착취나 이용에 대해 경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관계적-의존적 자아가 낮으면 유머감각까지 낮은 경우, 타인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네 번째, 중학생들의 경우 호의성이 부족한데 의존적인 사람은 가장 실속 없고 소위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자이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은 남에게 입은 피해를 용서하지만 피해를 입힌 남들은 나를 전혀 용서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기보다는 자기패배적인 수용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이다. 중학생들의 경우 자이존중감이 높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진다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균형 있고 공정한 대인관계를 유발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첫째 고등학생의 용서행동을 가장 잘 분류해주는 변인은 성별이었다. 여자고교생의 경우 자신은 남을 용서하는데 자신의 가해행동에 대해 남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확률은 없었다.

둘째,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경험이 많은 여학생들이 자존감이 낮을 경우 자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100%였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 자기를 비하하는 동시에 동정심을 유발하여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타인의 공격이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시사한다. 또한 남자들은 정서적인 안정성이 타인에게 호감과 친밀함을 증가시켜 죄나 잘못을 감면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남자이면서 정서적인 안정성이 부족하고, 분노도 억제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의존적일 경우 정서통제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은 용서하는데 타인에게는 용서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가장 비효율적인 대처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친밀도나 피해상황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수준, 가해자의 사과 유무 등의 상황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상황을 친구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피해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친구에 비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피해의식은 보다 심각하면서도 회피하기 어렵다고 지적될 수 있다(김지현, 2007). 따라서 용서하기 행동도 가족 이외의 대상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오영희, 2006).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경험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생활상의 커다란 스트레스(life event stress)가 아니라 사소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인 헤슬(hassle)의 개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를 심각한 결정행위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왕따나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 결정적인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표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가 중·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상황 역시 청소년의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에 한정하였기에 전체연령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연령대에 따른 발달과업이나 다양한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피해상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가정변인이나 개인의 기타 특성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추후연구에서는 태도나 대처기제 등의 역할을 체계화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청소년 자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조건(김홍순, 이연수, 김청송, 2010)에서 용서의 탐색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연미 (2005). 위험생활사건과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 (1999). 용서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수 (2002a). 용서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 김광수 (2002b).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 165-191.
-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9-33.
- 김지현 (2007).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용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청송 (2009). *청소년심리학의 이론과 쟁점*. 서울: 학지사.
- 김홍순, 이연수, 김청송 (2010).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낙관성과 강인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499-513.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철옥 (2007).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2008).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은 (2006). 성격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정선 (2007).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지현 (2008).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편마비 환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 (1990). 용서의 발달, 친구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4(2), 247-273.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한국 교육심리학회지*, 20(2), 467-486.
- 윤영미 (2007). 초·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향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 230-240.
- 이지연 (2008). 용서받기와 용서하기가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에 미치는 효과: 완벽주의와 문화성향을 조절변인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진 (2005). 정(情) 성향과 사과 및 인고(忍苦), 공감이 대인관계의 용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세훈 (2007). 용서행동의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 김태훈 (2006). 용서훈련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분노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동아논집. 42권. pp. 111-149.
- Allemand, M. (2008). Age differences in forgiveness: The role of future time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5), 1137-1147.
- Barber, L., Maltby, J., & Macaskill, A. (2005) Angry memories and thoughts of rev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anger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253-262.
- Benson, C. K. (1992). Forgiveness and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 76-81.
- Byrne, A., & Eysenck, M. W.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positive and negative interpretive bia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849-851.
- Costa, P. T. Jr., & McG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yle, D.,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042-1046.
- Davison, L. L. (2002). Forgiveness and attachment in college students. *The Sciences & Engineering*, 61, 17-22.
- Day, L., & Maltby, J. (2005). Forgiveness and social loneliness. *Journal of Psychology*, 139(6), 553-555.
- Denton, R. T., & Martin, M. W. (1998). Defining forgivenes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process and rol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81-292.
- Enright, R. D.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Enright, R. D., & Zell, R. L. (1989). Problems encountered when we forgive one another.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52-60.
- Fincham, F. D., Hall, J., & Beach, S. R. H. (2006). Forgiveness in marriag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Family Relation*. 55(4), 415-427.

- Fincham, F., & Paleari, F. G., & Regalia, C. (2002). Forgiveness in marriage: The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attributions, and empathy. *Personal Relationships*, 9, 27-37.
- Fitzgibbons, R. P. (1986). The cognitive and emotive use of forgiveness in the treatment of anger. *Psychotherapy*, 23, 629-633.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Hill, E. W. (2001). Understanding forgiveness as discovery: Implications for marital and family therap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3, 369-384.
- Holmgren, M. R. (1993). Forgiveness and the intrinsic value of person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0, 341-352.
- Koh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pp. 31-53). New York: Holt.
- Konstam, V., Holmes, W., & Levine, B. (2003). Empathy, selfism ,and coping as elements of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A preliminary study. *Counseling and Values*, 47, 172-183.
- Lefcourt, H. M. (2002). Humor.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619-631).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y Review*, 98, 224-253.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McCullough, M. E., Exline, J. J., & Baumeister, R. F. (1998). Anannotated bibliograghy of research on forgiveness and related concepts. In E. L. Worthington, Jr *Dim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193-317).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36.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Smedes, L. B. (1984).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 Row.
- Trindis, H. C.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 Wade, N. G., & Wordington, E. L. Jr. (2003). Overcoming interpersonal offence: Is forgiveness the only way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343-353.
- Williamson, I. T. (2004). *Forgive anxiety: Validation of a new mediator of forgivenes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원고접수일: 2012년 11월 14일

게재결정일: 2012년 12월 4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1, 183-201

A Comparative Study on Forgiven vs. Forgiving Experiences of Adolescents by the Gender and the School Grades

Yeon-Soo Lee Min-Kyoung Song Chung-Song Kim
Department of Youth Studies
Kyongg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determinants of forgiving-experiences vs. the forgiven-experiences of adolescent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of determinants of forgiveness experiences by gender and school grades.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419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youth activities in youth centers in Kyonggi area. This study performed the data mining decision tree method in order to compare the forgiveness experience determinants of adolescents, controlling for gender and school grades. The analysis outcomes indicated that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he forgiveness experience by school grades and gender. In addition, it could be said that forgiveness actions and experiences might be the long-term adaptations and coping skills,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adaptive strategies between male vs. female high school studen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forgiving-actions, forgiven-actions, gender, school grades